

- 본문 :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 제목 : “낙심을 극복하는 새로움의 비결”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젊어져야 할 집은 세상의 감투나 자량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는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어져야 할 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를 도취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취한 것은 술에 취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부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학벌과 돈,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고난을 통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며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다. 그 길에서 당신은 어떤 집을 젊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환경과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낙심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고후4:16, 고후4:8~9, 고후4:3)
2.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후4:17, 롬8:18, 고후4:18, 고후4:14, 빌3:20~21)
3.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자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였기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4.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고후4:7).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고후4:4,6) 이 보배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후4:10~11, 고전15:31)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어느 젊은 성악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성악 교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평가하기를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저 여자 분은 위대한 성악가가 될 소질이 있다. 만약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기만 한다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녀의 심령이 찢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목소리에 인생이 실린다는 것을 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빛을 발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짚어지는 고귀한 일을 예수 생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말씀기도제목

1. “영광의 중한 것”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봄으로 낙심을 벗어나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2.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낙심을 극복하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라!’는 말씀 앞에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을 터득하여 가슴을 찢는 자세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